

# 2021 신년메세지

##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리라

[호세아 6:1-3]

-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 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 1. 반전이 필요하다 (급속한 반전)

\* **본문의 배경** - 호세아 (북왕조 이스라엘의 전성기 여러보암 2세 때부터 북왕조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 5장에 보면 심판의 선언이다. 특히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6장 본문에 와서 그 기초가 바뀐다. 회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된다. 그리고 회개의 출발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는 것이다.

2021년은 위 본문처럼 '반전'이 필요한 해이다. 모든 황폐했던 영역 안에 반전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을 통해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는 시간이었다. 무너짐과 으깨어짐의 시간들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만 선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런 무너짐 속에서 우리가 2021년에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반전이다. 그런데 이것은 점진적인 반전이 아니라, 급속한 반전이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보라.

[호세아 6: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신속히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겠다는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마찬가지로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삼 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신속한 회복을 말한다. 2021년은 하나님의 빠른 회복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반전'이다. 점진적인 회복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닥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요나 3:9-10]

- 9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 10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반전'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분이시다. 모든 영역에 반전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신속한 반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신속하게 반전시키실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필요하다.

### 2.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반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호세아 6:1절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호세아 6: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여기서 '돌아가자'는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슈브'(שוב)라는 단어다. 이는 '떠남과 향함'의 동작(행위)을 의미한다. 현재의 위치(상태)에서 '떠나'(turn from), 출발점(원래의 자리)으로 '돌아가는'(turn to) 행동을 뜻한다. 한마디로 현재의 잘못된 생활을 끊고 거기서 떠나, 본래의 자리(하나님)를 향해 돌아가는 구체적인 행위가 회개다.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믿음' 위에서 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발을 떼고 눈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찢겨진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를 싸매어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슈브' 해야 한다"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으깨어지는 시간을 통과한 후 주어지는 것이다. 탕자가 완전히 으깨어진 후, 그의 모든 탕진된 것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고 돌아섰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다. 반드시 믿으라. 그리고 2021년에는 주님만이 나와 우리 가정과, 일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그 사람에게 회복과 치유가 있을 것이다.

### 3. 하나님을 아는 믿음 - 은혜의 확실성

[호세아 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마지막이다. 호세아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선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선포한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흑암을 깨고 매일 아침 어김없이 떠오르는 새벽 빛처럼 확실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식물이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늦은 비와 같다는 것이다. 늦은 비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해줄 가장 중요한 은혜의 비이다. 그러므로 늦은 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한다.

**\* '힘써 여호와를 알자' - 절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목표와 목적을 향해 의심하지 말과 나아가야 한다. 내 인생의 변화의 원년을 선포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정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반전을 주실 것이다.**

### 4.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라.

어떻게 2021년을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세대가 여호수아의 세대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실제로 본 여호수아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보며,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한 진짜 믿음의 세대이다.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했다.

[여호수아 1:5-9] 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 \* 5절 :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 \* 6절 :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다.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 \* 7-8절 :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약속 위에 서는 것이다. 주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약속 위에 서야 한다. 그 사람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이다.

### 5. 믿음의 훈련

내년 모든 변화와 반전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약속 위에 서는 믿음의 훈련에 정진하자. 그렇게 준비 되어져야 한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